

# 이해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 모델기반 정치학을 향하여\*

민 병 원 | 이화여자대학교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말 반(反)실증주의의 분위기를 허쉬만(Albert O. Hirschman)과 영(Oran Young)의 글을 통해 살펴보고, 이들이 실증주의 정치학 방법론에 대하여 제기했던 불만과 비판의 내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논박이 '이해'와 '설명'에 대한 베버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사회과학의 핵심이 법치정립적 노력보다는 개체기술적 노력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학의 '분리된 테이블'이라는 아몬드(Gabriel Almond)의 비유를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현실—모델—이론'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조망함으로써 한층 더 진화된 사회과학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설명과 이해라는 양대 전통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데 있어 '모델'이라는 도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양대 전통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모델 구축 작업부터 시작하되, 상황과 패러다임의 영향을 감안한 이해의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분열된 사회과학의 방법론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이해, 설명, 실증주의, 반(反)실증주의, 방법론, 분리된 테이블, 모델기반 정치학

## I. 들어가는 말

오랫동안 사회과학은 인문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인간의 집단이라는 고유한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논문은 사회과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에서 방법론적 괴리를 겪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이해'와 '설명'의 전통 사이에 불거진 대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립의 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이미 20세기 초반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 있지만, 이후 실증주의 사회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그에 관한 논의는 한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의 정치학에서 자연과학적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와 같은 '이해'와 '설명'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의 목표가 이러한 양대 전통 사이에서 어디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적 노력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당시에 이루어졌던 반(反)실증주의의 분위기를 허쉬만(Albert O. Hirschman)과 영(Oran Young)의 글을 통해 살펴보고, 이들이 실증주의에 대하여 제기했던 불만과 비판의 내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논박이 '이해'와 '설명'에 대한 베버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으로, 사회과학의 핵심이 법치정립적 노력보다 개체기술적 노력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대립구도는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되어오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학의 '분리된 테이블'이라는 아몬드(Gabriel Almond)의 비유를 통해 재조명한다. 즉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딜레마는 자연과 인간사회의 인위적 구분에서 기원하며, 학문적 편익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된 관행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사회과학 내에서조차 방법론적 패러다임의 간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허쉬만과 영의 실증주의 비판에 공감하면서도, 그들이 현실세계와 이론의 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의 고민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고 본다. 즉 이론 또는 법치정립적 연구작업들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평가절하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현실—모델—이론'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조망함으로써 그동안 대화의 단절과 고립된 전통으로 특징지어져온 사회과학 방법론의 담론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설명과 이해라는 양대 전통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데 있어 '모델'이라는 도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패러다임의 영향을 감안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설명의 전통과 이해의 전통 사이에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II. 정치학과 반(反)실증주의

### 1. 반(反)실증주의 사회과학의 전통: 허쉬만과 영의 사례

20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성장한 실증주의 접근법은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류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면서 1960년대에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과학적 접근방법을 옹호하는 학자들 사이에 거센 논쟁이 일기도 했다(Knorr and Rosenau 1969). 그 이후로도 다양한 패러다임과 이론 집단들이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경합을 거듭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어느 쪽의 승리를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증주의 진영 대(對) 반실증주의 진영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이루어졌던 반실증주의 진영의 반격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당시의 방법론적 대립구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부각시키고자 한다.

1970년 허쉬만은 남미에 관한 두 가지의 정치학 저술에 대한 평론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실증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워맥(John Womack)이 쓴 『싸파타와 멕시코혁명』(*Zapata and the Mexican Revolution*)과 페인(James L. Payne)이 쓴 『콜롬비아 갈등의 패턴』(*Patterns of Conflict in Columbia*)을 비교하면서 전자를 극찬한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쏟아냈다.<sup>1)</sup> 허쉬만이 보기에 워맥의 저술은 멕시코혁명을 다룬 풍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흥미진진한 읽을거리이자 ‘이해’를 위한 도구였다. 이에 반해 페인의 저술은 의미 없는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콜롬비아의 분쟁을 ‘설명’하려는 무모한 시도였다(Hirschman 1970, 334). 허쉬만은 이 두 저술이 각각 사회과학에서 ‘이해’와 ‘설명’의 전통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인과법칙의 검증을 통해 보편적인 지식을 발견하려는 후자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1) 허쉬만은 워맥의 책을 흥미롭게 읽었지만 페인의 책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워맥의 저서는 분석보다는 이야기 형태로 씌어졌으며, 멕시코혁명을 ‘이해’(understanding)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반면, 페인의 저서는 ‘사회과학’의 접근방법에 집착한 나머지 가설과 법칙, 모델과 패러다임에 매몰되었다는 것이다(Hirschman 1970, 330-331).

두 저술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허쉬만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과학’을 지향하는 사회연구자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이론화’의 허상이었다. 그는 이러한 허상을 ‘이론화에 대한 강박관념’(compulsion to theorize)이라고 불렀다(Hirschman 1970, 335).<sup>2)</sup> 이러한 강박관념은 사회과학자들이 설명을 위한 ‘이론’ 또는 ‘법칙’을 수립하기 위해 특정한 ‘패러다임’에 몰입함으로써 야기된 비극이었다. 페인의 경우 분쟁의 성향에 관한 법칙을 테스트함으로써 일반화된 이론을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보였는데, 그 때문에 콜롬비아의 분쟁에 관한 진정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쉬만은 콜롬비아나 남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보편법칙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품고 있었다. 사회과학자들이 관찰하는 대상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법칙을 발견하려는 무모한 시도보다는 현상의 ‘유일성’(uniqueness)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허쉬만은 이처럼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가 지나치게 ‘법칙정립적’(nomothetic)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자연과학과 같이 일반법칙을 찾아내려는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현상이 지닌 유일성을 고려할 때 보편법칙과 추상적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과 사회의 속성은 질서정연하지도 않으며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일반법칙을 추구하는 일은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사회현상은 보편적이면서도 단일하고, 예측 가능한 면과 불가능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Hirschman 1971, 28-30).<sup>3)</sup> 따라서 선불리 일반법칙을 만들어내려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정치나 사회현상을 그대로 맞추어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면서 특수한 것을 일반적·보편적인 것으로 변환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런 점

2) 이 용어는 플로베르(Flaubert)가 사용한 것으로, ‘la rage de couloir conclure’라는 프랑스어 표현을 영역한 것이다. 허쉬만(1970, 335)은 과학적 법칙의 추종성향이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경제·사회·정치적 현상을 정형화된 모델이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유행했는데, 페인의 연구도 그로부터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다.

3) 허쉬만은 사회현상을 특정 이론이나 패러다임 안에 속박(straitjacketing)시키기보다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그 변화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향은 남미 발전경제학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기존 패러다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열정’(passion for the possible)의 관념으로 이어졌다(Hirschman 1971, 27-37).

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허쉬만이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hindrance to understanding)라고 비판했던 대상이었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패러다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허쉬만의 충고였다. 허쉬만에게 있어 실증주의자들을 구속하는 ‘패러다임’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올바른 이해를 막는 장애요인이었던 것이다(Janos 1997, 145-146).

한편 같은 시기에 영도 지역주의에 관한 러셋(Bruce Russett)의 저서 『국제지역과 국제시스템』(*International Regions and International System*)에 대하여 가혹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영은 ‘지역’에 관한 러셋의 분석이 이론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험적 탐구에만 몰두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영은 러셋의 ‘지역’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현실을 분석하는 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이라는 개념만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를 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량적 분석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Young 1969, 486-489). 개념을 규정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무한한 판단기준이 존재하는데, 그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할 수 있는 선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영은 러셋과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누적함으로써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리켜 ‘순수귀납의 오류’(fallacy of pure induction)라고 불렀다. 이러한 오류는 수많은 기준과 선택에 관한 이론적 근거 없이 경험적 데이터를 모으려는 성향에 근거한다. 즉 경험적 자료 축적과 분석이 ‘목적 그 자체’(end in itself)로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야말로 실증주의 정치학이 안고 있는 심각한 결함 중 하나였다(Young 1969, 489-490). 영이 보기에 순수귀납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지닌다. 첫째, 경험적 데이터 분석이 이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경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수많은 이론들이 공존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론의 발전은 경험적 데이터 축적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부터 만들어진다. 셋째, 순수귀납의 오류에 빠진 연구는 설명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단순 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Young 1969, 491-493).<sup>5)</sup>

4) 영(1969, 488)이 러셋을 비판하는 가장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러셋은 ‘지역’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수많은 기준 중 어떤 것을 택할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5) 영(1969, 493)은 특히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하여 계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순수귀납의 오류라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영의 비판은 실증주의에서 나타나는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가설 수립과 검증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론’은 논리적인 일관성과 더불어 정확한 예측력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의 이론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용적 이론’(viable theory)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실용적 이론’이라 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과학적 이론’이 인간생활에 크게 기여해온 요인도 바로 이와 같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Young 1972, 183).

## 2. 사회과학 방법론과 베버의 유산: 이해와 설명

허쉬만과 영의 실증주의 비판은 사회과학 방법론에 관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설명’ 전통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해’ 전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이러한 변화는 주류 사회과학 분야를 잠식해온 실증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의 인식론과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자연과학의 엄밀한 방법론을 그대로 수입한 실증주의 접근법은, 연역적 추론을 중시하는 미시경제학과 귀납적 일반화를 중시하는 통계기법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조가 사회과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허쉬만과 영의 반(反)실증주의적 반격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미시경제학 또는 실증주의적 방법에 의해 ‘식민화’(colonization)되는 일방적 추세를 극복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Fine 1999, 403-404).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초반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전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베버(1949) 자신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설명’과 ‘이해’의 전통을 구분하고 이들이 사회과학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사회과학은 주관적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인간사회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베버의 입장이었다. 특히 그는 사회과학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당위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칙정립적 경험과학의 탐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경험과학은 일반화된 개념을 통해 법칙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과학적 설명의 전통에서는 ‘개념’이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그것이 지닌 보편성과 추상성은 탐구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유사한 대상들을 묶어내기 위해 개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곤 하는데, 이를 통해 개념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

고 비교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으나 이러한 확대과정을 통해 원래 그 개념에 부여되었던 의미가 희석되거나 왜곡되는 단점도 경험하게 된다. 베버가 경계한 것도 바로 지나친 개념의 '외연'(extension)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이었다. 어떤 개념이든 법칙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외연을 넓혀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원래 담고 있던 '내포'(intension)의 비중이 약해지면서 개념의 의미가 왜곡되는 위험에 노출된다(Sartori 1970). 그렇다면 자연과학적 전통을 대변하는 실증주의적 '설명' 방식을 넘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었고, 허쉬만과 영은 이러한 베버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러한 반실증주의 시각에서는 윤리와 이성, 과학과 인간행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실험과 같이 엄밀한 방법을 통해 사회현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MacIntyre 1981, 88-108).

베버의 전통을 따르는 허쉬만과 영은 이런 점에서 일반화에 의존하는 자연과학의 '설명' 전통보다는 특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해'의 전통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했다. 이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러셋과 페인의 무모한 실증주의적 연구는 사회 현실의 유일성과 복잡성을 무시하고 그로부터 자연과학적 규칙성, 즉 법칙만을 추출함으로써 일반화를 도모하려는 작업에 불과했다. 사회과학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현실과학'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무한대적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의 모든 측면을 다루기 보다는 일부만을 선택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즉 사회과학은 '구체적 현실과학'(science of concrete reality)이어야 한다(Weber 1949, 72-73). 복잡한 현실의 세세한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이해'의 전통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베버의 유산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베버의 전통을 이어받은 반실증주의 조류에서는 자연과학적 '설명'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연과학보다도 사회과학에서 '이해'의 접근법이 훨씬 더 자주 언급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쉬만과 영의 주장은 정치학 방법론의 '전환점'을 이룩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베버는 이러한 방법론 논의 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회의를 품고 있었다. 그는 사회과학에서 방법론을 둘러싼 이런 논쟁이 단지 시간 낭비일 따름이라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사회현상을 탐구할 때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용에 관한 이론'(substantive theory)에 의해 만들어지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과학은 '방법론'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발전한다는 것이다(Oakes 1977, 14).<sup>6)</sup>

6) 반(反)데카르트적 관점에서 베버는 지식의 기반에 관한 탐구가 과학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

별린(Isaiah Berlin)은 학자들의 탐구 성향을 논하면서 ‘고슴도치’ 유형과 ‘여우’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자잘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유형을 ‘여우’에, 그리고 굵은 것 한 가지만을 알고 있는 유형을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여우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잡다한 일들이 서로 모순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그것들이 서로 제각각 흩어져 존재하는 실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한다. 이에 비해 고슴도치는 아주 중요한 보편적 원칙 한 가지만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재단하려 한다(Berlin 1994, 436-437). 이러한 두 가지의 유형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허쉬만의 경우에는 고슴도치와 여우 중 후자의 스타일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고슴도치처럼 한 가지의 세계관, 즉 패러다임에만 몰두할 경우 현실의 세세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antiso 2000, 94).

### III. 정치학 연구방법의 균열: 통합을 위한 논거

#### 1. 베버 이후: 정치학 연구방법과 ‘분리된 테이블’

허쉬만과 영에서 시작된 반실증주의 기치는 이후 사회과학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말 아몬드(1988, 829-830)는 정치학의 여러 학파 또는 학풍을 이데올로기(좌-우)와 접근방법(경성-연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분리된 테이블’(separate tables)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며, 대부분 한 가지의 정형화된 유형에 딱 들어맞기보다는 가운데 영역에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방법론적으로는 중간적인 접근을,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아몬드(1988, 835-836)는 학자들이 몰려 있는 이 영역을 가리켜 ‘중간영역의 카페’(cafeteria of the center)라고 불렀다.

오늘날 좌-우 이데올로기의 구분과 대립이 학문 발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지만, 방법론적 차이는 여전히 정치학 내의 대화와 통합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

니라고 보았다. 그의 주장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자연과학의 방법을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경고로 이어졌다(Oakes 1977, 14-15).



‘패러다임의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정치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일관성’(coherence)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아몬드가 ‘중간영역의 카페’를 언급한 이후 정치학의 ‘분리된 테이블’은 적어도 방법론 차원에서 계속 분리된 채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1990년대 초반 킹(Gary King), 코헤인(Robert Keohane), 버바(Sidney Verba)의 『사회탐구의 디자인』(Designing Social Inquiry) 발간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허쉬만과 영 이후 새롭게 시작된 실증주의 중심의 방법론적 통합 움직임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형성하였다(King et al. 1994). 이후 반실증주의 진영의 공격과 비판이 다시 반복되면서 사회과학 방법론의 양대 전통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지금껏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 이후의 사회과학 방법론 논쟁은 여전히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 그리고 ‘설명’의 전통과 ‘이해’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설명의 전통은 사회가 하나의 독립적인 외부환경이라는 전제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행동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이에 반해 이해의 전통은 사회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행동규칙과 의미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construction)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사회를 바라보는 관찰자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관찰자가 사회 내부에서 바라보는가, 사회 바깥에서 들여다보는가에 따라서 설명과 이해의 전통이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접근방법을 대변하는 두 전통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Hollis and Smith 1990, 5-7).<sup>7)</sup>

또한 사회과학에서 ‘설명’은 연역적·법칙정립적 추론을 통해 ‘포괄법칙’(covering law)을 찾아내고자 하며, 현상이나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반면 ‘이해’는 행위자들의 행동과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적 활동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설명’과 ‘이해’의 차이는 ‘포괄법칙’과 ‘앎’(intelligibility)의 차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Rosenberg 1989, 483).<sup>8)</sup> 물론 포괄법칙을 기반으로 한 ‘설명’의 논리는 험펠의 자연과학철학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정립된 반면, ‘앎’

7) 철학자인 홀리스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이해’의 전통을, 정치학자인 스미스는 ‘전체론’에 기반을 둔 ‘설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오랜 대화와 토론 끝에 서로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합의한 바 있다(Hollis and Smith 1990, 214-216).

8) 로젠버그(Rosenberg 1989, 483-484)는 자연과학 대(對)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차이를 ‘설명’과 ‘이해’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로티(Rorty 1981, 575)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을 추구하는 ‘이해’의 논리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 없다. 다만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자로서 주관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분석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행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앎’과 ‘이해’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

베버 이후 ‘설명’과 ‘이해’의 전통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의 입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로서, 이해의 방식이나 설명의 방식이 각각 적합한 영역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오늘날 사회과학은 대체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해 호의적이라기보다 ‘적대적 공존’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입장은 이해와 설명이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행동의 해석적 이해가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설명과 서로 배치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막스 베버는 첫 번째 입장과 두 번째 입장 사이에 걸쳐 있다. 세 번째 입장은 이해와 설명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물의 구조가 원래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중적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Kurzman 2004, 331-332).

이 논문은 이러한 세 가지의 입장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을 택한다. 비록 이해와 설명의 전통이 구분되고 있지만, 양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설혹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두 전통이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실 사회과학 내에서 이해와 설명의 전통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오기는 했지만, 이들은 서로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 몇 차례에 걸쳐 방법론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각자의 전통 내에서 안주하면서 공존해온 것이다(Kurzman 2004, 332). 이런 점에서 1970년대 초 포퍼(Karl Popper)가 양대 전통을 ‘시계’와 ‘구름’으로 본 것은 매우 타당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물리학과 자연과학의 탐구대상이 ‘시계’처럼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사회과학의 탐구대상은 ‘구름’처럼 우연에 가깝고 무정형의 모습을 띤 것이라고 보았다(Popper 1973, 207-212). 그렇다면 ‘시계’와 ‘구름’은 영원히 별개의 대상을 가리키는 독립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야 하는 것일까? 사회과학자들은 방법론의 ‘분리된 테이블’에서 따로 흩어져 앉아야만 하는 것일까?

## 2. 자연과 사회의 분리: 정치학에서의 규칙성과 설명

자연과학의 근원을 이루는 뉴턴 패러다임은 자연을 하나의 ‘시계’로 본다. 시계는 정확

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상징하는데, 이런 시각에서는 포퍼의 비유와 같이 “모든 구름은 시계다”(All clouds are clocks)라는 주장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비정형적인 구름조차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주장은 ‘결정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20세기 초 이후 양자역학으로 말미암아 결정론조차도 더 이상 완벽한 것으로 간주되지 못하게 되었다. 전통 물리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시계조차도 결국 구름처럼 불확실한 대상일 따름이라는 것이다(Almond and Genco 1977, 491-492). 자연이 이러할진대,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로 결정론을 벗어나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서 그동안 ‘이해’와 ‘설명’ 사이의 차이가 자주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인문·사회과학이 ‘이해’만을 추구하고 자연과학이 ‘설명’만을 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해’가 ‘설명’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 고유한 의도와 가치 등 주관적 요소가 가미된 행위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바라보려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탐구과정에 ‘재구성적 공감’(reenactive empathy)의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도 ‘이해’의 또 다른 특징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행위자의 의도와 입장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런 특징은 자연과학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과 사회, 또는 설명과 이해의 전통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이 논문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인간사회의 속성이 자연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로티(Richard Rorty)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설명과 이해의 전통은 서로 다르지만, 전자는 자연을, 후자는 인간을 탐구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 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탐구의 대상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선행적으로’(a priori) 다르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존재론과 도덕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초래된 혼란일 따름이다(Rorty 1981, 581). 아울러 인간이 언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한 설명과 이해를 연결하는 본질적인 연계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일과 ‘설명’하는 일이 과연 다른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sup>9)</sup>

9)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선행적으로 개별적인 대상이라는 관념은 잘못이라는 것이 로티의 주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과학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그 바탕에는 '보편법칙'과 '규칙성'(regularities)에 대한 끝없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열망 때문에 사회과학은 역사학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단일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 연구일지라도 인과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역사학과는 다르다. 사회과학이나 역사학 모두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주제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역사학은 사회과학과 달리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는다(Ringer 2002, 178). 비록 사회과학에서 추구하는 보편법칙이 자연과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과학에서 법칙의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 그동안 사회과학에서 법칙을 수립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여러 근거가 제시되어 왔지만, 이러한 근거만으로 사회과학의 규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Kincaid 1990, 58-62).<sup>10)</sup>

물론 이러한 입장이 곧 실증주의적인 '설명'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과학적 설명'에 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연주의 전통을 대변하는 연역법칙적(D-N) 모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설명모델에서는 사물과 현상의 관계를 연역적으로 추론하며, 하나의 현상은 그것이 수반하는 다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관찰되는 패턴, 즉 '법칙'이 특정한 상황을 설명하는 주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정반대 진영에서는 과학적 설명이 '낯설은'(unfamiliar) 것을 '낯익은'(familiar)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는 설명의 본질이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데 놓여 있으므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이보다 더 극단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연구자의 인식론적 경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편진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앎에 대한 이상'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이며, 과학자들의 편견과 변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본다(Friedman 1974, 11-13).

---

다. 인간이 자연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도덕'의 언어인데, 이것조차도 인간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Rorty 1981, 581).

- 10) 첫째, 사회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 중첩되어 일어난다는 사실, 둘째, 사회는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시스템'이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 인간의 신념, 희망, 행동에 관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 이러한 근거에 해당한다(Kincaid 1990, 62).

이처럼 서로 다른 ‘설명’의 모델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할까? 첫 번째의 설명 모델과 두 번째의 설명모델이 ‘시계’와 ‘구름’을 대변하는 극단의 형태를 대변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합모델은 세 번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퍼도 이런 맥락에서 ‘시계’모델과 ‘구름’모델의 극단을 피하고 ‘결정론’과 ‘우연’의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중간영역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비결정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세계가 ‘시계’라면 모든 것은 결정론을 따르겠지만 비결정론이 옳다면 우연적인 요소가 자연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결정론보다 비결정론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더 잘 설명해준다고 볼 수는 없다(Almond and Genco 1977, 490). 따라서 포퍼는 이러한 양 극단 사이의 중간영역, 즉 완전한 우연의 세계와 완전한 결정론을 피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중간영역은 ‘구름’과 ‘시계’의 속성을 모두 공유한다고 보았다.<sup>11)</sup>

이와 같은 논의는 ‘바람직한 설명모델’에 관한 프리드먼의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그에 따르면, 바람직한 설명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이론이 지니고 있는 ‘충분히 보편적인’ 속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수시로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객관적’이어야 한다; 셋째, ‘설명’을 통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앞서 논의한 설명의 세 가지 전통 중에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바람직한 설명모델은 없다(Friedman 1974, 13-14).<sup>12)</sup>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과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설명모델 또는 이해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 자연과 사회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법치정립적’ 사회과학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공유한다면, 방법론적 통합은 어떻게 가능할까? 다음 장에서는 ‘모델기반 정치학’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것이 방법론 논쟁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11) 포퍼는 이와 같은 중간적 세계를 ‘플라스틱 통제’로 비유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정확하고 흠결 없는 ‘시계’ 모델과 우연으로 가득 찬 ‘구름’ 모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유동적이면서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 가능한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다(Almond and Genco 1977, 492).

12) 프리드먼(1974, 14)에 의하면, 설명이 ‘낮설은’ 것을 ‘낮익은’ 것으로 바꿔준다고 인식하는 입장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과학자들의 주관에 따라 설명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두 번째 조건에 위배된다. 한편 실증주의의 연역법칙적(D-N) 모델은 지나치게 보편법칙만을 강조함으로써 설명과 이해의 연계성을 등한시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 IV. 모델기반 정치학: 이해와 설명의 이분법을 넘어서

### 1. 현실세계와 일반법칙의 연결고리: 모델의 역할

1990년대에 들어와 킹, 코헤인, 버바의 사회과학 방법론 통합프로젝트는 규칙성의 발견과 인과관계의 수립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연구대상을 만들어내는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실증주의 진영 내부에서조차 방법론 표준화에 대한 논쟁이 일면서 통합에 대한 열정도 식어온 것이 사실이다(Sil 2000, 503). 이 논문에서는 앞의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과학 내에서 ‘설명’의 전통과 ‘이해’의 전통이 어떻게 보완 및 결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에서는 양대 전통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뒤르카임(Emile Durkheim)은 공동체(Gemeinschaft)와 기능사회(Gesellschaft)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로 ‘연대감’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옛날의 단순한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기계적(mechanical) 연대감’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유기적(organic) 연대감’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과학 내에서도 이러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과학 내부에 일종의 학문적 ‘노동분화’(division of labor)가 강조되면서 서로 다른 접근방법의 보완적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단일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개체기술적 접근방법과 다수의 사례로부터 일반화를 추구하는 법칙정립적 접근방법 사이의 ‘중간영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간영역이야말로 ‘유기적 연대’의 가능성이 큰 공간이다(Sil 2000, 529).

그렇다면 정치학 연구에 있어 법칙정립적 방법과 개체기술적 방법의 중간영역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모델기반 정치학’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베버의 ‘이념형’(ideal type)에 관하여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베버는 ‘이념형’이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설명’과 ‘이해’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자체로서 설명의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탐색적’(heuristic) 기능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제시한 ‘이념형’은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개념에 매우 근접한 것

이었다. 베버(1949, 90)는 이념형의 개념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generic) 도구이며, 따라서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념형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사회과학에서는 설명의 여러 대상들을 하나의 ‘유형’(class)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유형은 이념형 또는 집합적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명확한 개념적 특성을 공유하는 자연과학의 대상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사회적’ 속성을 띤다(Little 1993, 190-191). 이처럼 베버의 이념형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그는 이러한 본질적 기능을 뛰어넘어 이념형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Weber 1949, 101). 결국 이념형은 추상적 ‘모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과학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으며 그 안에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가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sup>13)</sup>

이와 같이 ‘이념형’이 수행하는 독특한 기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과학에서도 “현실을 대표하되 현실과 동일할 필요가 없는” 모델의 역할과 위상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허쉬만과 영이 제기했던 본질적인 비판, 즉 현실을 설명해내는 이론의 한계점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실증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설명방식이 하나의 ‘이념형’이라고 한다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설명들은 그러한 이념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이상적인 ‘설명’의 모형은 현실의 사회과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것은 탐구의 대상, 즉 피설명항(explanandum)을 설명하는 데 수많은 경로와 수많은 방법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무수히 많은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우리가 설명하려는 단일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인간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Keil 2006, 235).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사회과학의 탐구에서 ‘모델’이 현실과 이론 사이의 중간영역에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대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법칙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견해에는 설득력이 없다. 복잡성은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 그것을 탐구하는 ‘수준’의

13) 베버(1949, 103)는 이념형이 어디까지나 사회과학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추출한 현실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데이터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모델이나 이론은 현실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라는 점을 항상 강조했다는데, 이는 20세기 초반의 상황에서 목적론적·결정론적 성향을 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제이기 때문이다(McIntyre 1993, 201-211). 모델은 바로 이러한 탐구 수준을 ‘현실 복제’가 아닌 ‘현실 간소화’라는 방식을 통해 이론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여를 통해 발전된 이론은 다시 현실을 탐구하고 발견하며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이처럼 모델중심 정치학은 그 자체로서 이론이나 법칙을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회현상의 규칙성과 법칙을 발견해내는 데 있어 ‘탐색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현실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법칙의 축적보다 모델의 구축에서 시작하는 일이 더 바람직한 또 다른 이유는 간결성이다. 복잡한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실용성 또는 예측력을 지닌 법칙과 이론을 구축하는 일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처음부터 그와 같은 복잡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법칙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한 모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모델이 너무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지나치게 장황한 묘사에 의존하는 경우, 그리고 경험적 규칙성을 먼저 수립하려는 경우 등은 모두 사회과학이 지닌 설명과 이해 사이의 딜레마를 악화시킬 따름이다(Young 1972, 195-197). 우리가 원하는 ‘실용적 이론’은 단순한 모델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개량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델이 가치를 지닌 이유는 그것이 다양한 현상에 적용되어 친숙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다(Schelling 1992, 110-111).

모델은 또한 현실세계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실험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특정한 과학기술 연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은 인과관계의 설명이나 이론이 일단 확립된 이후에는 대안의 설명이나 이론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설명의 대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선행요건의 시나리오들이 모두 ‘INUS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INUS 조건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여러 원인들의 필수적인 조건”(MacKie 1980, 62)을 의미한다.<sup>14)</sup> 모델은 이와 같은 INUS 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데 있어 훌륭한 도구가 되는데, 이는 검증을 통하여 이론을 구축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회탐구 작업을 훨씬 용이하게 해준다.

14)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과정(조건)들은 결과에 대하여 충분조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과정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수조건이라고도 할 수 없다.



사회과학에서 어떤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체로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의 ‘원인’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실상 복합적 ‘원인군(群)’을 의미한다. 이 때 동일한 원인군 내에 공존하는 여러 요소들은 동시적으로 인과적 연쇄작용의 ‘결합체(conjunction)’를 형성한다. 여러 ‘원인군’들이 각각 하나의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각각의 원인군은 다른 경로를 통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는 ‘여러 결합체의 분리된 경로’(disjunction of conjunctions)를 통해 만들어진다(MacKie 1980, 60-61).<sup>15)</sup> 이와 같은 논의는 진리에 도달하는 여러 경로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 즉 어떤 모델을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

## 2. 모델기반 정치학과 이해의 전통

지금까지 사회과학에서 가설을 제시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이론을 확립하려는 법칙정립적 실증주의의 시도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데에는 앞서 논의한 대로 ‘모델’이 갖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왔다는 사실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엄격한 수리모델로부터 이야기체의 모델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의 모델은 현실 데이터와 이론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도구를 일컫는다. 하지만 영이 비판했던 러셋의 지역주의 연구나 허쉬만이 비판했던 페인의 콜롬비아 연구는 이러한 ‘모델’의 역할보다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설을 테스트하려는 시도에만 주안점을 두었다. 자신들의 주장을 압축한 ‘모델’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셋의 연구나 페인의 연구가 그와 같은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설 테스트’에만 집중된 연구의 초점을 확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현실과 이론 사이에서 ‘모델’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모델은 현실세계

15) 어떤 결과 P에 도달하기 위해 A, B, C로 구성된 하나의 원인군, 즉 결합체(ABC로 약칭)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아울러 P에 도달하기 위해 또 다른 경로 DGH와 JKL도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BC는 P의 원인이므로 ‘최소한의 충분조건’을 형성한다. 그런데 ABC의 한 구성요소인 A는 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 충분조건도 아니고 필요조건도 아니지만, P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A가 수행하는 기능을 INUS 조건이라고 부른다(MacKie 1980, 62).

16) 이처럼 데이터와 가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입장을 가리켜 ‘가설-연역주의’(hypothetico-deductivism)라고 부른다(Clarke and Primo 2007, 744).

를 대표하는 도구로서, 마치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현실을 대변하지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니며, 현실 세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만을 추려내어 재구성한 하나의 '이념형'이다. 지도와 마찬가지로 모델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현실과 동일하지 직접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설을 테스트하는 절차를 넘어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담당하는 유용한 기능 때문이다. 모델은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시야를 넓혀주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경험적으로 일반화하도록 도와주며, 앞 연구의 방향을 안내하고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면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도록 도와준다 (Clarke and Primo 2007, 742-744).

전통적인 실증주의 이론은 주로 'X→Y'라는 인과법칙의 형태를 지향한다. 이러한 법칙은 확실적인 행위자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며, X와 Y 사이에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함축한다. 한편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은 수많은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잡한 현실세계와 추상적 이론 사이에서 모델이 차지하는 위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모델은 하나의 '이념형'이라는 점에서 추상성을 띠고 있는데,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이론의 역할을 대신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론이 현실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모델이 그 이론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이처럼 '이론'과 '모델'이 얼마나 적절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가리켜 '분석적 적절성'(analytical adequacy)이라고 부른다. 한편 모델과 현실 데이터의 관계는 이보다 더 생생하다. 하나의 모델이 현실에 대하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론과 모델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발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즉 현실 세계가 작동하는 모습을 모델이 얼마나 잘 대변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를 가리켜 '존재론적 적절성'(ontological adequacy)이라고 부른다(Henrikson and McKelvey 2002, 7290).

그동안 합리적 선택이론 등 연역추론에 기반을 둔 이론들이 비판을 받아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하나의 이론과 그로부터 도출된 하나의 모델만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의 모델과 이론을 인정할 경우 우리는 다양한 이론 사이의 경합관계를 상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실증주의의 한계, 즉 지나치게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영이나 허쉬만이 제기했던 불만사항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바로 이론과 모델 사이의 '분석적 적절성' 문제였

17) 이론은 이런 점에서 '모델들의 집합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사회과학은 공리를 기반으로 한 연

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페인과 러셋의 ‘모델’이 잘못되었다는 점보다도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론’과 연계시키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무미건조한 가설들만 나열함으로써 자신들이 검증하려는 대상에 관한 모델 또는 가설이 어떤 이론적 연계성을 갖는지,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에서 현실과 이론 사이를 연결하는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수많은 변수들의 조합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무한대적인 현실의 복잡성 속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기준’의 문제로서, 베버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그 기준을 결정한다고 보았다.<sup>18)</sup> 모델을 통해 법칙과 이론을 정립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닌 신념체계와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버 사회과학론의 핵심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한한 현실의 요소 중 특정 부분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인과귀속’(imputation)의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변수들 사이의 추상적 ‘법칙’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변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Weber 1949, 78-79). 베버에게 있어 현실은 그 어떤 개념을 동원하더라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찾는 일이 경험적·과학적 방법을 통한 축적이 아니라 천재적 상상력 또는 창의성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Eliason 2000, 261).

이와 같이 현실을 대변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창의적 주관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엄밀한 자연과학적 법칙 정립의 부담에서 탈피하여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거나 ‘이해’의 전통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풀라니는 과학의 지식이 학자들의 참여를 복돋워주는 열정(passion)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를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이라고 불렀다. 또한 과학적 패러다임의 경우라도 의식적·무의식적

---

역적 추론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공존하는 다원적 접근법을 통해 발전한다(Henrikson and McKelvey 2002, 7290-7291).

18) 여기에서 사회과학의 ‘두 전통’, 즉 ‘설명’과 ‘이해’의 두 접근법에 대한 베버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난다. 베버는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부득이 하게 작용하는 접근법을 ‘이해’(Verstehen)로, 그리고 현실을 분해하여 일반화된 법칙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을 ‘설명’(Erklären)으로 분류하였다(Weber 1949, 76-77).

으로 작용하는 ‘마음의 습성’(habits of mind)은 실증적 사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이해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Margolis 1993, 8-12). 따라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검증가능성이나 오류가능성 등 객관적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하더라도, 학자들의 개인적 열정, 즉 실재를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욕구를 압도할 수는 없다. 이는 곧 과학적 가치의 진수가 우리가 그동안 ‘객관성’이라고 알고 있던 것에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sup>19)</sup>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질서는 사실상 그가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범위 내에 국한된 것이며, 그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과학적 확신이 작용하는 범위는 오로지 주어진 프레임워크 내에 국한된다(Polanyi 1958, 59-60).<sup>20)</sup> 사회과학 연구자들도 어떤 특정한 상황과 맥락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하나의 패러다임을 추종한다. 그들은 법칙과 이론을 통한 ‘설명’의 전통을 지향하면서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상황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해’의 전통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복합적 기능은 실증주의적 설명모델이나 반실증주의의 극단적 입장으로는 결코 통합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델기반 사회과학’은 설명의 전통과 이해의 전통을 모두 고려한 사회과학 방법론의 공존의 길을 제시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동안 방법론적 논쟁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지만,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전히 개인적 선호에 달려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치학에서 허쉬만과 영이 제기했던 반실증주의의 비판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기반 정치학의 방법론을 통해 한층 더 완화된 형태로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다.

## V. 맺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실증주의 대 반실증주의로 나뉘어 있는 최근의 사회과학

19) 이런 맥락에서 진리를 지향하는 과학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폴라니는 ‘불꽃의 외투’(shirt of flame)라고 불렀다. 뜨겁게 이루어지는 지식에 대한 열망과 개인적 관여는 ‘외투’라는 프레임워크의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Polanyi 1958, 64).

20) 이러한 주장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쿤의 경우 지식의 ‘상대주의’ 성향이 강했던 반면, 폴라니의 경우 그 자신이 강조한 ‘개인적 지식’이 단지 주관적인 것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진리에 대한 과학자들의 책임이 가미된 형태의 지적 도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Polanyi 1958, 65).

방법론 추세를 진단하고 그로부터 보다 바람직하고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에서 오랫동안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특히 방법론의 영역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세기 초반 이후 정치학에서도 계량분석을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가 팽배하면서 주류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 제기된 반실증주의의 반격 이후 지금까지 양대 진영의 화해와 통합은 여전히 난망하다. 아마도 양대 진영 사이에는 '상호 무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미미하게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양대 진영 사이의 대화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관한 논의 자체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실증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 방법론의 통합노력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반대 진영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치학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자연과학적 설명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문학적 이해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학 분야에서 가능한 통합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연과 인간사회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추어 방법론적 전통을 따로 떼어놓으려는 기존의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그로부터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 논문의 진단과 결론은 '모델기반 정치학'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사회과학에서 '모델'은 복잡한 현실과 추상적인 법칙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연구방법의 중요한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베버의 '이념형'에 관한 논의 역시 이러한 '모델'의 역할과 연관된 것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이 논문에서는 현실과 이론이 하나의 '유기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필수불가결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모델과 달리, 이 논문은 이해의 전통을 반영하는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완전한 법칙정립적 모델보다는 상황과 개인적 신념, 패러다임의 요인을 고려한 이해의 모델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논문의 전반부에서 소개했던 허쉬만과 영의 실증주의 비판을 넘어 '설명'과 '이해'의 전통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모델기반 정치학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참고문헌

- Almond, Gabriel A. 1988. "Separate Tables: Schools and Sects in Political Science."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1. No.4, 828-842.
- Almond, Gabriel A. and Stephen J. Genco. 1977. "Clouds, Clocks, and the Study of Politics." *World Politics* 29. No.4, 489-522.
- Berlin, Isaiah. 1994[1953]. "The Hedgehog and the Fox: An Essay on Tolstoy's View of History." In Isaiah Berlin, ed. *Russian Thinkers*, 436-498. London: Penguin.
- Clarke, Kevin A. and David M. Primo. 2007. "Modernizing Political Science: A Model-Based Approach." *Perspectives on Politics* 5. No.4, 741-753.
- Eliaeson, Sven. 2000. "Max Weber's Methodology: An Ideal-Type."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36. No.3, 241-263.
- Fine, Ben. 1999. "A Question of Economics: Is It Colonizing the Social Sciences?" *Economy and Society* 28. No.3, 403-425.
- Friedman, Michael. 1974. "Explanation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Journal of Philosophy* 71. No.1, 5-19.
- Henrickson, Leslie and Bill McKelvey. 2002. "Foundations of 'New' Social Science." *PNAS* 99. No.3, 7288-7295.
- Hirschman, Albert O. 1970. "The Search for Paradigms as a Hindrance to Understanding." *World Politics* 22. No.3, 329-343.
- \_\_\_\_\_. 1971. *A Bias for H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ollis, Martin and Steve Smith. 1991.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 Janos, Andrew C. 1997. "Paradigms Revisited: Productionism, Globality, and Postmodernity in Comparative Politics." *World Politics* 50. No.1, 118-149.
- Keil, Frank C. 2006.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227-254.
- Kincaid, Harold. 1990. "Defending Laws in the Social Sciences." *Philosophy of the Social*

- Sciences* 20. No.1, 56-83.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norr, Klaus and James Rosenau, eds. 1969. *Contending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rzman, Charles. 2004. "Can Understanding Undermine Explanation? The Confused Experience of Revolution."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34. No.3, 328-351.
- Ladyman, James 저. 박영태 역. 2003. 『과학철학의 이해』. 서울: 이학사.
- Little, Daniel. 1993. "On the Scope and Limits of Generaliz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ynthese* 97. No.2, 183-207.
- MacIntyre, Alasdair. 1981.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cKie, J. L. 1980. *The Cement of the Universe: A Study of Caus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Margolis, Howard. 1993. *Paradigms and Barriers: How Habits of Mind Govern Scientific Belief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Intyre, Lee C. 1993. "Complexity and Social Scientific Laws." *Synthese* 97. No.2, 209-227.
- Oakes, Guy. 1977. "The Verstehen Thesis and the Foundations of Max Weber's Methodology." *History and Theory* 16. No.1, 11-29.
- Polanyi, Michael. 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pper, Karl. 1973.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 Ringer, Fritz. 2002. "Max Weber on Causal Analysis: Interpretation, and Comparison." *History and Theory* 41, 163-178.
- Rorty, Richard. 1981. "Method, Social Science, and Social Hop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1. No.4, 569-588.
- Rosenberg, Alexander. 1989. "Superseding Explanation versus Understanding: The View from Rorty." *Social Research* 56. No.2, 479-510.
- Santiso, Javier. 2000. "Hirschman's View of Development, or the Art of Trespassing and Self-Subversion." *CEPAL Review* 70, 93-109.
- Sartori, Giovanni. 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No.4, 1033-1053.
- Schelling, Thomas C. 저. 정창인 역. 1992.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Sil, Rudra. 2000.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al Science Research: Unified Methodology or

‘Organic Solidarity’?” *Polity* 32. No.4, 499-531.

Weber, Max. 1949.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Free Press.

Whimster, Sam. 2007. *Understanding Weber*. London: Routledge.

Young, Oran R. 1969. “Professor Russett: Industrious Tailor to a Naked Emperor.” *World Politics* 21. No.3, 486-511.

\_\_\_\_\_. 1972. “The Perils of Odysseus: On Construct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24, 179-203.



ABSTRACT

---

## To Understand or to Explain? Towards a Model-Based Political Science

Byoung Won Min |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tradition of anti-positivism by Albert O. Hirschman and Oran Young in the later 1960's and discusses their discontents and critiques against the mainstream positivistic political science. Both scholars were to follow the heritage of Max Weber who had established the dual traditions of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in that they wanted to put more weight on the tradition of understanding. The situation, since their critiques, seems not to have been resolved much by now, and the paper shows the possibility of a unified political science by resetting the role of models between the reality and theories. Models, while they have been utilized as tools in the positivist tradition, may contribute to open the dialogue between two traditions as they can make an easy start and then develop into a model of understanding within contexts and under paradigms of each researcher. These efforts are widening the possibility of finding the unified way of social scientific traditions.

**Keywords:** understanding, explanation, positivism, anti-positivism, methodology, separate table, model-based political science